

사 명 감

— 정의 사회와 일의 윤리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옛날의 봉건 사회에서는 일의 귀천이 있었고,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였다. 옛날의 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손발을 움직여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생산적인 일은 서민이나 노예가 하는 것이었고, 귀족은 놀이삼아 학문과 예술을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문도, 예술도, 스포츠도 사회의 전체적인 기능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일로서 하게 된다. 우리가 「일」로서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말할 때, 즐거움이나 보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학문이나 예술을 일로 여기고 한다는 것은 사회의 생산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뜻도 된다. 즉, 현대 사회에서 학문이나 예술도 사회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행하는 일의 일종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의 평민이나 노예가 하던 일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의 의미와 가치도 사회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분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가치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든지 간에 당당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 일은 각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되 그 일을 맡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 개인의 인격은 그가 하는 일의 전문성이나 일에 임하는 권위에 상관없이 고귀하고 존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어진 직분을 훌륭히 감당해내고, 맡은 바 소임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열을 다하여 실천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의 윤리를 벗어나고 있다면, 그러한 사명감은 병든 사명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명감은 다른 사람의 사명감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서 가지는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병든 사명감의 대표적인 것은 흔히 정열적인 일꾼이 공사(公私)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강한 정적 유대 의식을 유지하여 온 혈연 중심적인 좁은 연대의식 속에 살아 왔기 때문에 조직사회의 윤리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말하자면, 강한 정적인 유대 의식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모두가 가족적 분위기속에서 일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상사는 흔히 나이 적은 부하 직원을 아우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때로는 주저없이 나무라기도 하며 때로는 형제처럼 다정히 격려하기도 한다. 이런 일터의 분위기는 어느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이고 조직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할 구상원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직장의 윤리가 흐려지고 만다.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직장이라는 좁은 집단에 매몰되는 것을 미덕으로 알아 자타와 공사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전인간적인 종속 관계 속에서 상사의 명령이라면 근무시간의 연장, 근무 업종의 전문성은 물론 휴가 등의 법적 특전까지 무시당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타이피스트가 차를 대접하는 것 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조이며, 여사무원이 상사(上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무로 채용된 사환에게 구두를 닦아 오게 하고, 담배를 사 오게 하는 등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 째은 누구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이런 일을 시키는 상사나 웃사람의 잘못이 크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것은 가급적 웃사람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것이 자신의 공적 역량이나 노력보다 높이 평가받고 또 승진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심정은, 곧 자신의 존엄성이나 사명감을 포기한 노예 근성이기 때문이다. 공용차를 상사의 가족을 위해서 유용시키는 일, 공무외의 지출비용을 공적 경리에서 엄출하는 일, 상사의 생일을 비롯해서 사모님, 아이들의 생일, 부모, 조부모의 제사날까지 외워두는 노력이며, 상사의 출타에 줄지어 배웅하고 출영하는 타성, 재력이 없으면서도 빚을 내 가면서까지 상사나 동료 직원들을 접대하려는 노력 등의 예측적인 생활 관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공사 생활의 혼동이 곧 청탁, 증수죄, 오직 등 부패의 원천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조선조 성종 때의 경상북도 청송 고을 부사 정 봉(鄭鵬)의 이야기다. 정 봉과 어릴 적부터 교분이 두터웠고 당시 영의정이던 성 희안이 백자(栢子, 잣)와 벌꿀(백자와 벌꿀은 청송의 특산물이다)을 줌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정 봉이 대답하기를 『잣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간의 벌통에 있으니 부사된 사람이 어찌 이를 얻겠느냐』 하였다는 것이다. (『연려실기술』에서)

전통 사회 안에서 공직에 임하는 정신 자세를 타

이른 이 일화는 오늘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 공·사가 분명치 않은 직장 풍토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에 투철한 책임감을 갖기 어렵다.

우리의 주변에는 하찮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자기의 맡은 직업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갈채와 찬사를 보내어 의욕을 북돋워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야유와 냉소로 사명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가 공동선(共同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공·사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과 아량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북돋워 주고 격려해 주는 풍토가 조성될 때에만 올바른 일의 윤리가 확립될 수 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남의 이목에 얽매이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것이 체면 의식의 변형된 모습이 다.

자신의 과거 지위와 경력을 내세우면서 새로 주어진 일의 중요성은 논하지 않고 그 격이 전직에 견줄 수 없다고 하여 거기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풍토도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어느 일간지에 전직장관이 어느 시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로 부임했다는 신문 기사가 보도되자 큰 화제거리가 된 일이 있다. 이런 것이 신문의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전직 대통령이 대학의 강사가 되고 한 기업체의 세일즈맨이 되어 상품 선전에 나섰다든가, 전직 대통령이 퇴역 후 어떤 회사의 수위로 취직했다는 남의 나라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 신문들은 뭐라고 쓸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택한 직분조차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는 사람만 만나면 불만을 털어 놓는 사람이 많다. 『정말 남보기 창피해서』라고 장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일이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걸치레의 체면의식이 도사

리고 있는 것이다. 『내 전직이 이러 이러한데 비록 밥을 굶어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원 사람이 체면이 있지...』, 또 『내 친구들은 다들 그럴 듯한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알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창피해서...』

이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분을 비하시키고 운수 한탄, 신세 타령이나 한다면 결국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현대 사회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만이 희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와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 그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때 더욱 자기의 업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된다. 성실과 근면보다는 오히려 적당주의, 요령주의, 편법

주의 등의 부조리한 방법이 출세와 성공의 비결이 되는 사회 풍토 하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소신껏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나고 바보스런 사람으로 비웃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 풍토의 개선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실한 사명감의 소유자는 이러한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선진 조국 창조의 영광스런 대열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명감은 오늘날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국민적 자질이다. 이러한 사명 의식이 충만할 때 우리 민족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될 것이다.